

완도군 '포스트 코로나' 대비 65개 사업 발굴

해조류바이오 연구·해양치유마을 조성
 개별 관광객 맞춤형 마케팅 추진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확대

해양치유·힐링 어촌마을 조성, 지속가능 수산물 국제인증(ASC, ASC-MSC) 확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안심 숙소 건립 등 65개 사업을 발굴했다.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양치유단지·휴양 레저시설 구축을 위해 화상회의 개최 등 비대면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정부 정책에 대응해 해조류 다량제 연구지원 빅데이터 구축과 관점염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해양치유프로그 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침체한 관광 산업에 대해서는 단체 관광객이 아닌 개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관광객 맞춤형 수용 태세 정비와 관광 전문가 포럼 개최를 통한 안도관광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섬과 어촌이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어 깨끗한 자연과 치유 자원 보유 등 잠재력 있는 어촌을 대상으로 안도만의 특화된

어촌마을을 조성한다.

식품 선호도가 친환경적이고 신선한 식품, 건강·가정식 추세로 가고 있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ASC)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우철 안도군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안도만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적극 행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린뉴딜 정책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코로나 제로'...해남서 힐링하세요 군, 부산·경남 여행사 초청 팸투어



해남군이 코로나 이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대비해 부산·경남지역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해남군은 지난 15~16일 부산·경남지역 여행사 대표 및 실무자 22명을 초청해 1박2일 해남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코로나 확산 이후 관광트렌드가 개별여행 및 힐링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해남의 우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는 울돌목 우수영 관광지에서 시작으로 해남 공동박물관, 미항사 및 달마고도, 땅끝관광지, 대흥사, 고산선선도 유적지 등을 두루 둘러보고 땅끝 정지연이 만들어낸 다양한 먹거리도 선보였다.

여행 관계자들은 팸투어 동안 코로나 이후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해남군은 이를 반영해 새로운 여행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팸투어를 통해 부산·경남지역에서 청정 해남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해남만의 특화된 여행코스 등 매력 넘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내년 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완도군민이 해낸다

범군민지원협의회 발대식·군민 결의대회



완도군은 지난 19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2021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군민지원협의회 발대식 및 군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완도군은 지난 19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2021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범군민지원협의회 발대식과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단체장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결의문 낭독, 해조류박람회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위상을 떨칠 수 있기를 염원하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사회단체·생활체육회, 각종 동호회, 읍면 이장단·부녀회장 등을 중심으로 범군민지원협의회가 구성됐고, 회장에는 조인호 완도군의회의장이 맡았다.

협의회는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군민 하나되기 운동을 주도하고 국내외 홍보 등에도 앞장선다. 10월에는 군민 4대 실천운동(청결, 질서, 질서, 봉사) 범군민 다짐대회를 열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로마 진실의 입'이 진도에도...40t 자연산 바위 관광명소화

진도 향토문화회관 앞 무형문화재전수관에 있는 '진실의 입' 바위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 진도를 동외리 산기슭에서 발견한 바위가 로마의 대표 관광명소인 '진실의 입'과 비슷해 스토리텔링 관광지로 조성했다.

진도군 무형문화재전수관으로 옮긴 '진도 진실의 입' 바위는 SNS 인증 이벤트 등 2년여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주요 관광지로 거듭났다.

'진실의 입'은 얼굴 형상을 한 40t 자연산 바위에 어른 손등까지 넣을 수 있는 큰 입을 가지고 있어 '로마의 진실의 입'과 비교된다.

부산에서 '진실의 입'을 찾은 관광객 김모 씨는 "SNS에 올라온 진도문화관광 홍보용 웹 드라마와 인증샷 등을 보고 방문했다"며 "TV로만 봤던 로마의 진실의 입이 궁금했는데, 진도에서 비슷한 체험을 하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진도 향토문화회관 앞 '진실의 입' 바위가 입소문에 힘입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힘든 상황에서 로마를 여행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진도 진실의 입을 홍보하는 등 색다른 체험 제공으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진도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낙지·병어 이어 수국축제 취소 신안군, 코로나 확산 방지 총력

신안군이 대표 수산물축제인 '섬 낙지축제'와 '섬 병어축제'를 취소한데 이어 '섬 수국축제'도 전면 취소했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조짐에 따라 예방 차원의 결단이다.

22일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26일 개최 예정된 '섬 수국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축제장인 도초면 수국공원(13ha)에는 형형색색 다품종의 14만본 200만송이 수국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6일간 열린 섬 수국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1만2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신안의 대표 섬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비수 도권 지역사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면서 "내년에 더 알찬 섬 수국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앞서 이달 압해도에서 개최 예정이던 '신안 섬 낙지축제'와 지도읍에서 열 예정이던 '섬 병어축제'를 잇따라 취소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 고이도에 차조단지 조성



신안군은 압해읍의 작은 섬 고이도를 잠곡인 '차조'의 섬으로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이도는 인구 200여명 사는 작은 섬이지만 예로부터 집마다 차조를 재배해오고 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잠곡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면적을 20ha까지 늘려 명실공히 '차조의 섬'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차조는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 소화 흡수가 잘 돼 대장을 이롭게 하며 산후 회복과 혈액 생성을 촉진, 당뇨와 빈혈에 좋다고 알려졌다.

고이도는 신안군 역점 시책인 '사계절 꽃피는 천사섬 신안'의 하나로 조팝나무공원을 조성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차조 소포장 상품에 이어 차조를 활용한 떡이나 막걸리 등 가공품목을 다양화해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